

有島武郎의 『石にひしがれた雑草』 論

- ‘편지’를 통해 소통을 묻다 -

우 성 아*

(e-mail: seongamail@naver.com)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石にひしがれた雑草』와 ‘편지’
 3. ‘편지’를 읽고, 해독하다
 4. 부치지 못한 ‘편지’, 마지막 ‘편지’
 5. 나가는 말
-
-

1. 들어가는 말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 1877-1923)의 『돌에 짓눌린 잡초(石にひしがれた雑草)』는 『太陽』(1918.4)에 게재된 후, 1918년 9월 叢文閣에서 간행된 有島武郎저작집 제6집 『태어나는 괴로움(生れ出づる悩み)』에 약간의 본문수정을 거쳐 수록되었다.

고사카(小坂晋)는, 본 작품을 ‘「어떤 여자(或る女)」의 실험적 작품’으로 평하고¹⁾, ‘「어떤 여자」 전편과 후편의 골절을 해명하고, 아리시마에 대한 의문,

* 경북대학교 강사 일본근대문학

1) 小坂晋(1979) 「有島武郎文学の性心理学的分析」 『有島武郎文学の心理的考察』 桜楓社. 34頁

「石にひしがれた雑草」는 주인공이 부정한 아내에게 성적 갈등을 통해 복수하는 줄거리인데, 끊임없이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줌으로써, 욕정을 못이기는 아내를 성기아에서 병리학적 히스테리에 빠뜨려 목적을 달성하는 작품이다. 이것은...the second corresponds to a state in which, owing to the prolonged stress of psychic traumatism, -sexual or not,- a definite condition of hysteria has arisen. The one state is healthy, through abnormal; the other is one of pronounced morbidity. The condition of true hysteria is thus linked on to almost healthy states, and

작가로서의 아리시마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한 키포인트가 되는 작품'이라고 평했다²⁾. 작품 그 자체보다도 「어떤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한편, 고사카(小坂晋)는 「돌에 짓눌린 잡초」는, 주인공이 가토(연적)에게 보낸 유서라는 형식을 취한 서간체소설³⁾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유서라는 형식을 취한 서간체소설」이란 평가는 그 이후 「돌에 짓눌린 잡초」의 형식으로 언급되어 왔다. 그런데 오사토(大里恭三郎)는 「돌에 짓눌린 잡초」의 문제점으로서 바로 「작품전체가 A의 유서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이 소설의 방법상의 결함은, 유서 즉 소설이라고 하는 단안적인 방법을 취한 것, 또 그 유서속에 필자를 상대화하는 시점을 도입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문제인 것은, 증오에 불타 자기를 객관시할 이성을 잃은 인물을, 즉 소설인 유서의 필자로 선택한 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つまり、この小説の方法上の欠陥は、遺書即小説という単眼の方法をとったこと、またその遺書の中に筆者を相対化する視点を導入しなかったこともあるが、それ以上に問題なのは、憎悪に燃え狂って自己を客観視する理性を喪った人物を、即小説であるところの遺書の筆者に選んだところにあったといえるのである⁴⁾。

즉 오사토(大里恭三郎)는 「단안적인 방법」을 취한 「유서」라는 형식을 통해 필자를 상대화할 시점을 도입하지 않은 점, 그리고 증오 때문에 자신을 객관시할 수 없는 인물이 「유서」를 쓰는 점 등을 들어 이 소설의 방법상의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돌에 짓눌린 잡초」를 「유서」로 보았을 때, 「유서」라는 글 자체가 과연 상대화할 수 있는 글인지, 또 「유서」를 상대화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상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먼저 이 글이 「유서」가 맞는지 작품의 서두부분과 마지막부분을 통해 확인해 보자.

모습을 감출 때가 왔다. 무엇을 꾸물대며 설치는 거냐고 마음속으로 자네에게

especially to a condition which may be described as one of sex-hunger.(Auto-erotism P.232)라고 하는 이론에 의한 성심리학적 연습이라 할 수 있으며, 「或る女」의 실험적 작품으로 이 습작에 의해 葉子を 처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작자는 얻었을 것이다.

2) 小坂晋(1979) 「『石にひかれた雑草』と『或る女』」 『有島武郎文学の心理的考察』 桜楓社. 194頁

3) 小坂晋(1979) 「有島武郎作『石にひかれた雑草』の問題点」 『有島武郎文学の心理的考察』 桜楓社 162頁

4) 大里恭三郎(1981) 「『石にひかれた雑草』論」 『安川定男・上杉省和編 作品論 有島武郎』 双文社. 178頁

가책받는 일도 끝났다. 자네와 함께 이 지구상에 있으면서 모습을 감출지, 혹은 저 세상으로 모습을 감출지, 그런 것은 따지지 말아줘, 설령 따진다 한들 아무 소용없네.

姿を隠す時が来た。何を愚図々々のさばつてゐるのだと心の中で君に呵責まれる時も果てた。君と一緒にこの地球の上にながら姿を隠すのか、或はあの世に姿を隠すのか、そんな事は詮議してくれるな。縦令ひ詮議した処が無駄だ。(서두p.1)

사람이 일생동안 아마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귀하고 심오한 생명의 연소를, 조금의 배려도 없이, 깔보는 마음으로 희롱한 자네가, 과연 자네의 연인을 죽음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나는 어딘가에서 기대하며 보고 있겠네.

人間が一生の間に恐らくは一度より経験しない尊い深い生命の燃焼を、一片の思ひやりもなく、ふざけ切つた心で弄んだ君が、果して君の恋人を死より救ひ得るか何うが、僕は何処から楽しみに見てゐるぞ。(말미p.79)

서두부분을 보면, A는 ‘이 지구상에 있으면서 모습을 감출지, 혹은 저 세상으로 모습을 감출지’ 아직 결정을 짓고 있지 않다. 오히려 끝부분에서 ‘나는 어딘가에서 기대하며 보고 있겠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때문에 ‘유서’가 아니고 편지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면 ‘중요함에 불타 자신을 객관시할 이성을 상실한 인물’을 필자로 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A를 상대화할 시점은 필요한 것인가? 만약에 상대화할 시점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이 작품의 중대 결함이 되는 것인가? 오히려 결함이 아니라 상대화할 시점을 두지 않는 일방적 입장을 이야기하려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서 상대화할 시점이 없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오해가 진짜 작가 아리시마가 하려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즉 편지는 소통의 수단이지만, 상대화할 시점을 두지 않는 일방적 글쓰기를 통해서 소통되지 않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통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가진 편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에 짓눌린 잡초』의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石にひしがれた雑草』와 ‘편지’

『돌에 짓눌린 잡초(石にひしがれた雑草)』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M코)를 바라보는 남편(A), 그 남편의 입장에서 말하는 남성중심적 시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아내에게 배반당한 남편이 아내와 불륜관계이면서 친구이기도 한 남성(가토)에게 보내는 서간체 소설로, 한 남자가 다른 한 남자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편지는 상대방에게 전하려는 나의 마음이며 생각이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상대가 있다는 점에서 일기나 수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 일면 그 대상이 되는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리라는 신뢰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상대가 아닌 다른 이에게 전달되거나 노출되었을 때에는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편지가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된 경우는 소통의 수단이 되지만, 잘못 전달된 경우는 오해가 생겨 커뮤니케이션이 차단되기도 한다.

『돌에 짓눌린 잡초』는 그 자체가 하나의 편지이지만 굳이 상대의 답장을 기대한다고 할 수 없다. ‘유서’로 보아도 유서에 답장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만, 편지를 놓아두고 가면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호간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방적 의사 전달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돌에 짓눌린 잡초』 속에는 여러 통의 편지가 들어있는데, 「돌에 짓눌린 잡초」라는 편지틀 속에 여러 개의 편지가 들어있는 액자형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편지틀 속에 있는 편지들은 온전하게 편지의 형식을 갖춘 게 있는가 하면 편지라고 부르기에 애매한 것들도 있다. 하지만 온전한 편지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즉 종이조각(원래 편지의 일부인 편지조각, 즉 종이조각)이더라도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편지라고 부르기로 한다.

다시 말해서 「편지」라는 것을 일단 정의한다면, 종이에 적힌 글을 통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이조각 형태의 편지는 그 편지를 읽는 A로 하여금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곤란하게 만들기도 한다.

아래 표는 작품 속 편지들을 정리한 것이다.

작품 속의 편지		
①歌留多		‘나(僕)’와 M코의 첫 만남은 가루타모임에서였다. 가루타는 편지를 의미하는 포르투갈어에서 왔다.
②M코→‘나’	종이조각	M코와 ‘나’의 첫 만남은 M코가 ‘나’인 A에게 보낸 종이조각 편지에 의해서이다.
③M코→나	편지	M코는 이런 여자다라고 A가 인식하게 되는 편지이다.

③가토→(M코) →나	종이조각	가토가 M코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조각 편지를 통해서 A는 둘의 불륜을 의심한다.
④나→가토	유서	히스테릭하게 반미쳐버린 아내 M코를 가토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표] 작품 속의 편지의 형태와 그 내용

그 외에도 A의 외유시절 동안 M코와 A는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 편지가 유일한 소통수단이었던 시대이다. 연인인 M코와 A가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편지가 뜯혀지기 시작했을 때 A는 자신들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된다.

편지글을 주고받음으로 상대와 소통하는 것은 편지본연의 순기능임에 틀림없다. 반면, 편지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상대에게 전달되거나, 또는 읽는 이가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왜곡하는 경우는 편지 본연의 소통기능이 저해된다. 편지를 받은 사람이 소위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A도 보낸 이의 의도를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편지를 읽는다. A가 '나름대로' 해석함으로써 오해가 생기고 상대를 불신하게 된다. 이는 편지의 역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돌에 짓눌린 잡초」에는 두 번이나 종이조각사건이 나온다. 완성된 편지의 형태라 하더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A는 한 조각, 또는 일부분을 읽고 전체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것은 퍼즐과도 같다. 『돌에 짓눌린 잡초』에서는 이 종이조각사건이야말로 전체 작품의 구성상 전개에서 필수적인 사건들이다. 사건의 중요한 열쇠가 되며 사건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음이다. 그럼 『돌에 짓눌린 잡초』의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고사카(小阪晋)는 전체를 6부구성으로 나누고 있다.

「돌에 짓눌린 잡초」의 구성은, (1)주인공의 서두와 M코의 주인공에 대한 유혹과정(발단)(2)주인공의 미국행과 M코의 부정(3)주인공의 귀국과 결혼(이상, 전개부)(4)M코의 두 번째 부정발각(5)주인공의 복수, M코의 병리적 히스테리에 의한 발광(클라이맥스, 이상 2~5까지가 중추부)(6)주인공의 자살, 파멸의 암시(결말부)로 나눌 수 있다.

「石にひしがれた雑草」の構成は、(一)主人公の前置き及びM子の主人公に対する誘惑過程(発端) (二)主人公のアメリカ行き及びM子の不貞 (三)主人公の帰朝と結婚(以上、展開部) (四) M子の再度の不貞発見 (五) 主人公の復讐、M子の病理的ヒステリーによる発狂(クライマックス、以上二~五迄が中枢部) (六) 主人公の

自殺、破滅の暗示（結末部）と分けることができる。⁵⁾

고사카(小坂晋)는 (一)의 M코의 유혹장면을, 「어떤 여자의 일별(或る女のグリンプス)」에서 다즈코(田鶴子)가 기베(木部)를 유혹하는 장면의 변주로 본다. 그리고 (四)(五) 특히 (五)에서 엘리스의 ‘性の 관념’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구성 (一) 발단부는 「어떤 여자(或る女)」 전편의 변주라 하고, 구성 (四) (五)는 「어떤 여자」 후편의 변주라고 논했다. 엘리스의 ‘性の 관념’이 작품을 이루는 기본뼈대이며, 『어떤 여자』 전후편의 변주로서의 위치도 확실히 했다.

그런데 나카무라(中村三春)는 고사카(小坂晋)의 6부구정보다 간략하게 4부구정으로 나누었다.

1부는 A와 M코의 연애시대, 2부는 A의 외유시대 및 M코와 가토의 최초의 간통이 발각된 귀국당일, 3부는 일단 화해한 A와 M코의 결혼생활의 생태 및 M코와 가토의 두 번째의 간통이 드러나기까지, 그리고 4부에서는 A가 M코에게 한 여러 복수가 드러나고, M코가 히스테리상태에 빠지는 모습이 그려진다. 각각 도입부, 전개부(1), 전개부(2), 그리고 결말부라고 부를 수 있다.⁶⁾

第一部はAとM子の恋愛時代、第二部はAの外遊時代及びM子と加藤の最初の姦通が発覚した帰国当日、第三部は一応和解したAとM子の結婚生活の生態及びM子と加藤の二度目の姦通の露見まで、そして第四部ではAがM子に仕掛ける数々の復讐の手管が披露され、M子がヒステリー状態に陥る模様が描かれる。それぞれ導入部、展開部(一)、展開部(二)、そして結末部と呼ぶことができるだろう。

나카무라(中村三春)가 6부구성을 4부구정으로 한 것은 좀 더 간략하게 작품을 보기 위함이다. 하지만 4부구정으로 작품을 읽었을 때, 그 전개과정에서 편지가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1부 연애시대 때는 첫 번째 종이조각 사건으로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2부 외유시절의 ‘천박한 편지’로 인해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고, 불륜이 드러나며, 3부 다시 종이조각 사건으로 간통이 드러나고, 4부 A가 복수 끝에 마지막 편지를 남기게 되기까지의 사정을 이야기한다. 즉 편지에 의한 전개라고도 볼 수 있다.

종이조각 사건은 1부와 3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연애를 하게 되는 계기와

5) 小坂晋(1979) 「有島武郎作「石にひかれた雑草」の問題点」 『有島武郎文学の心理的考察』 桜楓社 166~173頁

6) 中村三春(1994) 「悪魔の三角形「石にひかれた雑草」における三者関係の構図」 『言葉の意志 有島武郎と芸術史的転回』 有精堂. 140頁

복수를 결심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M코가 A에게, 또 다른 하나는 가토가 A에게 보낸 두 개의 편지를 포함하고, A가 가토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 편지들을 싸고 있는 액자형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4부구성을 중심으로 편지를 읽는 A와 편지를 쓰는 A를 통해 소통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한다.

3. ‘편지’를 읽고, 해독하다

먼저 1부에서 나오는 편지이다.

M코와 A의 첫만남은 가루타모임이 있던 날이었다. 남자들과 당당히 겨루는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에 A는 동경과 감탄을 마지않는다. 그리고 M코의 승리, 환호... M코는 가루타게임을 잘하는 여자였다. 가루타(歌留多)는 포르투갈어 편지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가루타는 두 개의 패를 맞추어가는 게임이다. 원래 하나인 것을 두 개로 나누어놓고 그것을 누가 빨리 하나로 합치는가 겨루는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루타게임을 잘하는 M코는 의미 조합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각각의 제 의미를 찾아내는 퍼즐에 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두에 가루타게임을 등장시키는 것은 그 게임이 있던 날 만났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능력이 밖으로 드러난 사건이 첫 번째 종이조각사건이다. 가루타의 어원이 편지인 것도 우연은 아닌 것이다.

A는 편지를 읽고 해독하는 사람이다. M코가 A에게 처음 편지를 보낸 이후 A와 M코는 수없이 많은 편지를 주고받게 된다. 그런데 M코가 A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는 종이조각이었다. 종이조각을 조합해서 편지를 삼는 이러한 행위는 톨스토이의 『안나·카레리나』에서 레빈과 키티가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쓰여진 것을 보고 아리시마가 감동하고 새로운 사랑방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이런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머릿글자를 썼다. 언, 당, 나, 그, 할, 말, 그, 절, 의, 그, 그? 이 글자들은 이러한 의미였다. ‘언제가 당신은 나에게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절대로 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만의 것입니까?’ ...중략...그녀는 ‘그, 그, 대, 할, 없’이라고 썼다. ...그러더니 갑자기 레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알았던 것이다. 그것은 ‘그때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라는 의미였다.

…키티는 또다시 머릿글자를 썼다. ‘마, 당, 그, 잇, 용, 주, 있.’ 그것은 이러한 의미였다. ‘만일 당신이 그때의 일을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실 수가 있다면.’ 7)

그러나 ‘어쨌든 톨스토이가 그린 남녀와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거리는, 이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가 웅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네’라는 말에서 아리시마는 그 사랑방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키티와 레빈이 頭文字로 사랑을 확인하고 구애하는 것은 레빈과 키티가 너무나도 순수함을 이야기하고 순수한 사랑임을 입증하고 있다. 아리시마는 레빈과 키티의 이상적 사랑에 감동하고 있다. 그러나 M코와 A의 사랑은 정반대의 사랑이다. 이것은 아리시마가 이 작품의 동기로 이미 언급한 것으로 ‘사랑이 정당하지 않게 취급당한 경우’이며, 과멸적인 사랑을 의미한다.⁸⁾ M코의 종이조각은 A를 유혹하는 장치이다. M코와 A의 과멸적인 연애를 키티와 레빈의 이상적 사랑에 대비시켜 그리고 있다.

그런데 M코는 그냥 편지를 부치는 것이 아니라 기교를 써서 상대방이 스스로 퍼즐을 맞추게 함으로써 보내는 이의 의도를 파악하게 한다. A는 종이조각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불안해하며, 그 다음에는 흥분과 기대를 하며 M코의 마음을 읽어간다. 종이조각들이 완전히 조합되어 하나의 문장이 되자, 그것은 A에게 보내는 데이트신청서가 된다.

엽서 반 정도 크기의 종이조각이 꽤나 빠른 속력으로 창에서 우리 집 마당 쪽으로 떨어졌어. …꼭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그 문구는 완성되었네.

COME TO 渋谷 STATION THIS NOON

M코라는 여자는 이런 짓을 할 만한 여자였던 거야. 맨 마지막장부터 보낸 것도 M코답지만, NO로 사람을 겁주고 그 다음에 느낄 흥분을 고조시키려는 서투른 장난은 특히 M코답지.

葉書の半分程の大きさの紙切れが、可なり早い速力で窓を離れて僕の家の方へ落ちて来た。(中略) 丁度一週間目の朝にその綴りは完成した。それはかうだった。

COME

TO

7) 톨스토이, 최원준 옮김(1995) 『안나 카레리나1』 흥신문화사. 616-617쪽

8) 小坂晋(1979) 「或る女」と「アンナ・カレーニナ」 『有島武郎文学の心理的考察』 桜楓社. 51頁

小阪는 有島가 타고난 이해력과 동정으로 「사랑이 정당하게 취급된 경우와 정당하지 않게 취급된 경우」의 양면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石にひかれた雑草」를 「或る女」의 실험작으로서 과멸의 사랑을 그렸다고 논한다.

渋谷
STATION
THIS
NOON

M子といふ女はこんな事をする女なのだ。逆に持つて行つたのもM子らしいが、NOで人を威かしておいて、後の興奮を引き立たせようとする駄じゃれは殊更らM子だ。

그러나 A는 종이조각을 통해서 M코라는 여자를 읽어내고 있다. 「M코라는 여자는 이런 일을 하는 여자인 것이다」라는 A의 말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M코가 어떤 여자인지 알게 될과 동시에 그 사실이 A로 하여금 M코에게 끌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M코는 ‘오늘 오후 시부야역에 오세요’라는 편지를 전달했고 A는 그 글을 읽으면서 M코라는 여자를 읽고 있었다. ‘감정이 급상승한 것은 내 쪽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연애를 실행에 옮긴 주동자는 M코라는 점이야’라고 A는 생각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3부에서 가토가 M코에게 보낸 편지의 종이조각이다. 종이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M코에게 보낸 편지의 전문이 아닌 찢어진 조각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조각을 편지로 읽는 사람이 A이다. 다시 말하면 이 종이조각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가토가 A에게 보낸 편지가 되었다. A한테 보내진 것은 아니지만 A가 자신의 것으로 읽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동안 M코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A가 다시금 M코를 불신하는 계기가 된다. 편지의 조각만 남았지만, 남겨진 종이조각으로 역으로 편지를 만들어간다.

다음날 아침 평상시처럼 목욕을 하려고 욕실로 들어갔어. 탈의실에서 잠옷을 벗으려다가 말끔히 청소가 된 모자이크 타일 바닥 위에 사방 1.5센티미터 정도의 종이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네. (중략) 나는 그것을 주워들었어.

次ぎの朝いつもの通り入浴の爲めに浴室に這入つた。脱衣室で寝衣を脱がうとすると、掃除の行き届いたモザイクの床の上に五分四方程の紙切れの落ちてゐるのを見付け出した。

(中略) 僕はそれを拾ひ上げた。

평소라면 눈여겨보지 않았을 종이조각이 하필 A의 눈에 띄게 된 것이다. 앞에는 “落付か”⁹⁾가 뒤에는 “郎が”라는 말이 적혀 있을 뿐이다. A는 이것을 여

9) “落付か”는, 落付<가> 원형이다. 뜻은 to calm down; to settle down; to die down; to become stable; to abate 진정하다; 달래다; 가라앉히다; 자리를 잡다; 정착하다; 안정하다; 누그러들다; 누

러 가지로 해석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M코는 어떤 남자한테서 편지를 받은 거다. 그것만은 틀림없다. ‘차분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들킬 거예요’, ‘나는 들뜬 마음으로 당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도망가 ○○에서 정착합시다’, ‘완전히 A를 누그러뜨린 당신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악마!…….

さうだとしたら、少しもM子はある男から手紙を受けたのだ。それだけはもう間違ひのない事だ。「しつかり**落付**かないと露はれますよ」「私は**落付**かない心地であなたを待ちこがれてゐます」「逐電して○○に**落付**かうぢゃありませんか」「すつかりAを**落付**かせたあなたの腕を私は恐ろしく思ひますよ」……悪魔!……。(p.44)

이 종이조각을 통해서 A는 틀림없이 남자한테서 받았을 것이라 단정하고, 그 내용을 유추하고 있다. A는 첫 번째 M코의 종이조각사건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시 퍼즐을 맞춰 편지를 완성하려고 한다. 그것은 편지를 보낸 자가 어떤 의도로 보낸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에 A는 더욱 필사적으로 읽어내고 있다. A는 가토의 의도를 퍼즐로 맞춰보려고 한다. 이 간절함은 오히려 A의 왜곡된 읽기를 초래한다.

퍼즐맞추기와 같은 편지조각들... 그것은 정답이 있는 맞추기가 아니다. 읽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답은 무엇이고 될 수 있다. 이것은 소통을 차단한다. A가 M코를 파악하는데, 그리고 A가 가토와 M코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또는 마음을 읽어낸다는 것은 실제로 퍼즐맞추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맞출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늘 자신의 한계속에서 남을 바라보고 자기 입장에서 그 마음을 읽어내고 있다. 여기서 수많은 오해가 일어나는 것은 피치 못할 일이다.

때문에 ‘나름대로’ 또는 ‘자기 방식으로’ ‘편지’를 읽고 해석하는 A는 소통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고, 고립되게 된다.

4. 부치지 못한 ‘편지’, 마지막 ‘편지’

르네 지라르는 ‘편지를 쓴다는 것은 실제의 대결을 회피하면서도 모델과 동등한 위치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다’¹⁰⁾라고 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그러뜨리다 등이다.

10) 르네 지라르/김보세(2008) 『르네 지라르 욕망, 폭력, 구원의 인류학』 살림. 104쪽

『지하생활자의 수기』에 관해 언급한 글인데, 지하생활자는 ‘자기를 모욕한 자를 제압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A의 마지막 편지인 「돌에 짓눌린 잡초」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나카무라(中村三春)는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의 작품군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소설 구성방법의 다양성에 있다’¹¹⁾며 일기, 서간체소설, 장편, 단편, 대화형식 등으로 이루어진 소설을 예로 들고 있다. 특히 주고받는 편지로 이루어진 『선언(宣言)』에 관해서 논하고 있다. 「돌에 짓눌린 잡초」를 굳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 자체가 서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성상 다양성을 띠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편 고사카(小坂晋)는 『돌에 짓눌린 잡초』의 서간체소설 형식의 특징에 주의해 논하고 있다. 즉 일기체 소설이나 서간체 소설의 경우 일기나 편지를 쓰는 사람의 내면을 그리기에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의 내면은 그리지 못하므로, 외모나 행동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¹²⁾ 다시 정리를 하면, 「돌에 짓눌린 잡초」는 아리시마 다케오의 소설의 다양한 구성방법의 하나를 실천한 것으로 실제 대결은 피하면서도 그 모델과 동등해지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면서, 다른 주인공의 내면은 그리지 못하고 주인공 자신의 내면만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인물은 외모나 행동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서간체소설로서의 특성을 편지를 쓰는 A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돌에 짓눌린 잡초」라는 편지는 A가 M코를 만난 이후부터 주고받게 된 편지이야기를 줄곧 하고 있다.

첫 번째 종이조각사건에서 편지로 완성되었을 때에 A가 편지를 읽고 M코라는 여자를 해석했던 것을 보았다. A는 편지를 받고 자신의 마음에 대한 대답이 NO가 아닐까 싶어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그래서 그날 밤 ‘홍분으로 폭발할 것 같은 심정으로’ 장문의 편지를 쓴다. ‘그날 밤 홍분으로 폭발할 것 같은 심정으로 M코에게 긴 편지를 썼어. 그 편지를 맨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운명에게 혼신을 다해 애원했다네’. 그러나 그 다음날 A는 O자와 같은 위치에 I가 적혀 있는 종이조각을 줍고, NO가 아니라는 기쁨으로 새로운 기대에 부풀어 전날 밤 썼던 자신의 편지는 부치지 않는다. 이 편지에는 A가 M코에 대해 느낀 가장 진솔한 감정이 들어 있을 것인데, 이 편지가 전해졌다면 M코와 A는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 A가 스스로 전달하지 않았으나, 실은 M코가 전달할 필요가 없게 만든 것이다. A의 편지를 M코가 차단한 것이다. A의 생각이나 마음은 전달되지 않았다.

11) 中村三春(1994) 「不透明の罪状 書簡体小説としての『宣言』」 『言葉の意志 有島武郎と芸術史的転回』 有精堂. 65頁

12) 小坂晋(1979) 「石にひしがれた雑草」 『有島武郎文学の心理的考察』 桜楓社. 180頁

그리고 2부 외유생활이 시작된다. A는 결혼하기엔 아직 A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M코의 의견에 따라 외국으로 나가기로 결심한다. A가 스물둘, M코가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것은 세상의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그보다 나은 게 없을 거라는 판단에 의해서였다. M코의 매력이 그에게 용기를 내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A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제부터네, 내가 자네에게 진정으로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A가 진짜 하려는 이야기는 외유때부터의 것이다. 외유 동안 M코의 불륜이 있었고, A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일본으로 돌아오게 된다. A가 ‘진정으로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왜 자신이 외유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이러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무렵부터네. M코의 소식이 눈에 띄게 뜸해지다가 딱하고 끊어진 것은. 끊임없이 보내는 내 생활의 상세한 보고에 대해 M코로부터 웬지 천박한 칭찬과 격려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의 본능으로 아무리 짧은 문구에서라도 난 분명히 글쓴이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다네.

そのころからだ、M子の消息が見る見る間遠になつて、ふツつりと絶えてしまつたのは。僕が絶えず送つてゐた僕の生活の微細な報知に対して、M子から何となく浅薄な賞賛と激励とが来るやうになつた。恋人の本能から、どんな短い文句の中にも僕は明かに筆者の心力の強さを感ずる事が出来た。(p.22)

삼년간의 외유생활 중 이년 동안은 M코에게서 ‘끊임없이’ 편지가 왔다. ‘끊임없이’오는 편지는 M코의 마음이 A에게로 향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열렬한 애정고백과 미래에 대한 냉정한 계획’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었다. 그 편지에 대답해서 A도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다. 서로가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 받으며 대화가 가능할 때는 둘의 관계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 그런데 조금씩 띄엄띄엄 하던 편지는 다시 이년을 더 연장할까 생각하는 무렵부터 M코한테 오는 편지가 갑자기 끊어져 버린 것이다. 그리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는 A의 ‘생활의 상세한 보고’에 M코로부터 ‘천박한 칭찬과 격려’가 오기 시작한다.

삼년 째 되는 어느 날 M코로부터 온 편지에 대해 A는 ‘그 편지의 표정이 특히나 천박’했다고 느끼고 ‘다 식어버린 마음으로 따뜻한 말을 써 보내는 것만큼 편지를 받는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그 때 일을 적고 있다. 편지로 유일하게 소통하고 있던 A가 M코의 ‘식어버린 마음’을 느꼈다는 것은 유일한 소통수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M코가 ‘식어버린 마음’으로 쓴 편지는 A에게 ‘공허감’을 주고, A는 ‘떡떡

함'을 달랠 길이 없어 곧바로 견디기 힘들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다. 하지만 답장을 받지 못한다.

첫 번째 종이조각사건때 A는 처음 M코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지만, 전해지지 못하고 아니 M코에 의해 전해질 필요가 없어졌고, 외유 중 M코에게 '공허감'에 편지를 써 보내지만 또한 답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편지가 전해지지 못하거나, 전해지더라도 답장을 받지 못하는, 소통이 차단된 A자신을 말해준다.

내가 모습을 감춘 뒤, 자네는 이 편지한통 말고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테니까.(중략) 나는 단지 자네에게 뭔가를 남겨두고 싶어서 쓸 뿐이네. 굳이 목적이라면 그것뿐이네. 자네가 이 편지를 읽고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그것은 내 알 바 아니네.

僕が姿を隠した後に、君はこの置手紙一つの外は何物も見出さないだろうから。(中略)僕は唯だ何だか君に書き残して置きたいと思ふから書くだけの事だ。強ひて目的といへばそれだけのものだ。君がこの置手紙からどんな結論を引き出そうとも、それは僕の知つた事ぢゃないのだ。(p.2)

이것은 서두부분에서 「돌에 짓눌린 잡초」라는 편지글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이것이 A의 마지막 편지이며, 외유에서 돌아와 M코와 결혼하고 그 후 가토와의 불륜을 알게 되면서 무참히 복수한 후에 쓰는 글이다. A는 스스로 '뭔가를 남겨두고 싶어서' 이 글을 쓸 뿐이며, 다른 목적은 전혀 없다고 한다. 그리고 가토가 어떤 결론에 이르더라도 그것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밝힌다. 이 또한 A의 일방적인 편지임을 말해주고 있다. 왜 굳이 '뭔가를 남겨두고 싶'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르네 지라르의 편지에 대한 정의가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다. 앞서서도 인용되었지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실제의 대결을 회피하면서도 모델과 동등한 위치에 이르러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다'이기 때문이며, 사랑하는 M코가 자신이 아닌 가토를 택함으로써 삼자관계에서 가토는 A가 흉내내고 싶은 모델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A는 굳이 편지를 남기는 행위를 통해 가토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마지막 4부에서는 A가 M코에게 한 다양한 복수의 양상이 드러나고, M코가 히스테리상태에 빠지는 모습이 그려진다.

M코는 스스로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어. 매일 아침 그녀를 엄습하는 심한 두통.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눈물을 글썽이는 견잡을 수 없는 비애. 갑작

스런 격분. 지금까지의 난잡한 성생활에서 차단된 결과, 한창때인 서른 살 여자를 몸부림치게 만드는 무서운 욕정. M코는 나날이 이런 채찍에 신음하며 괴로워했네.

M子は自分から進んで家に引き籠もり勝ちになつた。毎朝彼女を浸す激しい頭痛。何んでもない事に涙ぐまれる取りとめのない悲哀。突然の激怒。今までの乱雑な性的生活から遮断された結果、三十の女盛りをさいなみ虐げる恐ろしい欲念。M子は毎日さういふ筈の下にうめき苦しんだ。(p.70)

끊임없이 가해지는 육체적 심리적 고통이라는 A의 복수에 M코는 점점 피해진다. 성공적인 복수라 할 수 있을까? 결국 M코는 얼굴까지 점점 흥해진다.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얼굴이고 보면 M코의 마음이 심리적 고통에 일그러지고 얼굴에도 그 고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오사토(大里恭三郎)는 사랑이 ‘정당하지 않게 취급당한 경우, 그것은 사람을 과멸로 이끄는 무시무시한 힘이 된다’¹³⁾고 아리시마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 했다. 사랑이 ‘정당하지 않게 취급당’했다는 것은, A에게 있어서 편지를 통해 소통하지 못함으로 느꼈던 ‘먹먹함’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있는 M코에 대한 배신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서로 소통되지 않는 가운데 자기의 사랑이 정당하지 않게 취급당한다고 느끼게 되고, 복수하게 되는 일련의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편지를 전하고자 했으나 상대 때문에 전하지 못하고, 편지를 보냈으나 답장을 받지 못하던 A는 결국 마지막에 답장을 요하지 않는 유서같은 편지를 남겨둠으로써 마지막 일방적 소통을 하는 것이다.

5. 나가는 말

『돌에 짓눌린 잡초(石にひしがれた雑草)』는 그 자체가 하나의 편지로 된 서간체 소설이다. 그 속에 여러 개의 편지사건이 들어있는 액자식구성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편지는 소통을 위한 수단이지만, 『돌에 짓눌린 잡초』에서는 편지가 소통을 저해하거나 오히려 차단시키는 기능을 한다. 편지를 통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4부구성을 통해서 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1부 연애시대 때는 첫 번째 종이조각 사건으로 A와 M코가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2부 외유시절의

13) 大里恭三郎 (1981) 「『石にひしがれた雑草』論」 『安川定男・上杉省和編 作品論 有島武郎』 双文社. 173頁

M코의 '천박'한 편지로 인해 A가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고, M코와 가토의 불륜이 드러나며, 3부 결혼과 또 한 번의 종이조각 사건으로 두 번째 불륜이 드러나고, 4부 A가 복수 끝에 마지막 편지를 남기게 되기까지의 사정을 이야기한다. 즉 편지에 의한 전개라고도 볼 수 있다.

이 4부구성을 편지를 읽는 A와 편지를 쓰는 A로 다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부에서 연애시대 때 종이조각편지를 받는 A는 M코라는 여자를 읽어내고, 3부에서 종이조각을 발견한 A는 M코의 불륜을 읽어낸다. 그리고 1부 종이조각 사건 중 장문의 편지를 썼던 A는 M코에 의해 전하지 못하고, 2부 외유시절 '천박'한 표정의 편지를 통해 '먹먹함'에 편지를 쓰는 A는 답장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4부에 자신과 M코 둘 모두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복수가 행해지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남기고 사라지는 것이다.

A는 편지를 읽되 '나름대로' 해석한다. 그래서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편지의 표정까지 읽어낸다. 또한 A는 편지를 쓰나 편지를 통해 상대와 잘 소통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편지를 쓴다는 것에 대해 르네 지라르는 '실제의 대결을 회피하면서도 모델과 동등한 위치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생활자의 수기』를 예로 들고 있다. 즉 지하생활자는 '자기를 모욕한 자를 제압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여기서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사라지는 A의 모습을 찾으면 어떨까. 즉 편지가 A의 복수의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사토(大里恭三郎)는 『돌에 짓눌린 잡초』를 통해서 사랑이 '정당하지 않게 취급당한 경우, 그것은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무시무시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아리시마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 했다. 사랑이 '정당하지 않게 취급당'했다는 것은, 단순히 배우자의 불륜이 아니라, A에게 있어서 편지를 통해 소통하지 못함으로 느꼈던 '먹먹함'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있는 M코에 대한 배신감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즉 서로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이 정당하지 않게 취급당한다고 느끼게 되고, 복수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는 다름아닌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리시마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소통이 차단됨으로써 오해와 불신이 일어나고 결국 복수에 이르고 파멸해버리는 남녀관계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参考文献】

- 르네지라르/김모세(2008) 『르네 지라르 욕망, 폭력, 구원의 인류학』 살림. 104쪽
- 톨스토이, 최원준 옮김(1995) 『안나 카레리나1』 홍신문화사. 616-617쪽
- 有島武郎(1918) 「石にひしがれた雑草」 『有島武郎全集 3』 叢文閣
- 大里恭三郎 (1981) 「『石にひしがれた雑草』論」 『安川定男・上杉省和編 作品論 有島武郎』 双文社. 173~178頁
- 大久保 健治(1997) 「有島武郎『石にひしがれた雑草』論 : 抑圧される他者/招喚される他者」 関西学院大学文学研究科人文論究 47(3), 16~30頁
- 小坂晋(1979) 「或る女」と「アンナ・カレーニナ」 『有島武郎文学の心理的考察』 桜楓社. 51頁
- 小坂晋(1979) 「『石にひしがれた雑草』と『或る女』」 『有島武郎文学の心理的考察』 桜楓社. 194頁
- 小坂晋(1979) 「有島武郎文学の性心理学的分析」 『有島武郎文学の心理的考察』 桜楓社. 34頁
- 小坂晋(1979) 「石にひしがれた雑草」 『有島武郎文学の心理的考察』 桜楓社. 180頁
- 小坂晋(1979) 「有島武郎作『石にひしがれた雑草』の問題点」 『有島武郎文学の心理的考察』 桜楓社 162頁 166~173頁
- 中村三春(1994) 「悪魔の三角形『石にひしがれた雑草』における三者関係の構図」 『言葉の意志 有島武郎と芸術史的転回』 有精堂. 140頁
- 中村三春(1994) 「不透明の罪状 書簡体小説としての『宣言』」 『言葉の意志 有島武郎と芸術史的転回』 有精堂. 65頁

要 旨

『石にひしがれた雑草』は、それ自体が一つの手紙になっている書簡体小説である。その中に「紙切れ」を含めていくつかの手紙が入っている。有島は手紙を通して何を話そうとしたのか。

まず構成について調べてみると次のようである。一部の恋愛時代、はじめての紙切れ事件でAとM子は恋人になる。二部の外遊時代、M子の「浅薄」な手紙によってAが日本に戻り、M子と加藤の不倫を知るようになる。三部、結婚と二番目の紙切れ事件と二番目の不倫、そして四部、Aが復讐した後、最後の手紙を残す。

このような四部構成を、手紙を読むAと手紙を書くAを中心にしてみると次のようである。一部の恋愛時代、紙切れの手紙を通してAはM子という女を読み取る。三部、紙切れを見つけたAはM子の不倫を読み取る。そして一部の紙切れ事件中、Aは自分の心を伝えようとするができない。二部の外遊時代、M子の手紙をもらって「浅薄」な手紙だと感じ「詰まったような」心で手紙を出す。返事は来なかった。そして四部、自分自身とM子、両方を破滅に陥れる復讐。それで最後に手紙を置いて姿を隠す。Aは手紙を読むが、「自分なりに」解釈する。それで手紙を出した人がどんな人なのかを、また手紙の表情までを読み取る。さらにAは手紙を書く。Aが手紙を書くということは、ドストエフスキーの『地下生活者の手記』のように「自身を侮辱した者を制圧して誘い掛けるために」ではないだろうか。一方、有島は『石にひしがれた雑草』を通して愛が「不正当に取り扱はれた」場合を描いたと言った。愛が「不正当に取り扱はれ」と考える心底には、Aが「浅薄」な手紙をもらって感じた「詰まったような」感じがある。有島は「紙切れ」とか返事のない手紙などを通して意思の疏通が欠いている状況をつくりだした。そして不倫へ、復讐へ、破滅へ展開する。意思疏通の欠如が誤解を招いて、復讐して、結局破滅する男女関係の悲劇を、手紙を通して話そうとしたのである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手紙、紙切れ、疏通、復讐、読む、書く

투 고 : 2012. 11. 30
1차 심사 : 2012. 12. 15
2차 심사 : 2013. 1. 5